

[코멘토] 웹 개발 직무체험 1주차 과제 – 함승완

[작업한 내용]

Html, css, javascript 를 이용하여 page를 구성하였고 로그인, 회원가입을 구현하였습니다.
Node.js Express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한주가 학교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내용]

현재 DB를 연동하지 않고 메모리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DB연동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판은 게시글을 추가로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또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Local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WS를 이용하여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01. Login 화면

LOGO

로그인



로그인 상태 유지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LOGO

1234

....

회원가입



로그인 상태 유지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 | [로그인](#)



포스트 1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포스트 2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포스트 3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포스트 4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포스트 5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03. 게시물

140 x 40

검색



포스트 1의 소제목

포스트 1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쏙 밀어 버렸다.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썰리고 달아날지언정.



포스트 1의 소제목

포스트 1의 제목

2022-04-20 홍길동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싸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
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싸



포스트 1

포스트 2

포스트 3

포스트 4

포스트 5